

#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비좁아 불편

## 상근직 4명 사용 '빠듯', 협의회장 좌석도 없어 ... 5개 테마로 다양한 사업 펼쳐

고성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의 협력관계 구축과 자원봉사 인증센터 운영을 비롯해 '아이문화 프로그램', '우리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량에 비해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3년 일반 사회단체로 출발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화하면서 업무량이 늘어 현재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2명, 간사 1명 등 총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아이문화와 우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근 교사들도 2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1층의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상근

직원들의 책상과 자료들을 비치하기도 빠듯해 단체의 대표인 협의회장은 좌석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특히 지난 2009년 고성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서 함양을 위한 학원지원 및 멘토지원 사업을 펼치는 '아이문화 프로그램'이 전국 220개 사업장 가운데 상위 10위권에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처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 정책적 배려를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층열 사무국장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



고성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량에 비해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다.

화, 노인 등 5개 테마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보다 넓

은 공간으로 사무실이 이전된다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금강산콘도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 17개 팀 참가 '유소년 겨울철 스토브리그' 유치 ... 직원 95% 고성 주민



전희서 본부장



'유소년 겨울철 스토브리그' 참가팀들이 거진공설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현내면 마차진리 소재 금강산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이코리아팀 등 전국의 17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유소년 겨울철 스토브리그'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줄어든 매출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7개팀의 선수단과 교육원, 스태프 등 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진공설운동장 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선수단과 함께 학부모들도 개인 차량을 몰고 행사가 열린 거진지역을 방문해 인근 횡집과 건어물상가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금강산콘도는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금강산콘도는 특히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체 예산을 들여 구장 시설작업을 벌이고 헬스를 설치하는 등 차질 없는 대회 진행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금강산콘도 전희서 본부장(48

세)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매출이 15% 이상 줄었지만, 단체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미래의 관광수요자인 꿈나무들에게 고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강산콘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콘도로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47명의 직원 가운데 95%가 지역주민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